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19 02 Vol. 526

Contents

테마 이야기: 청년희망패키지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 06 이달의 주인공에게
- 08 맞춤 솔루션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 12 人 스토리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손민규 님
- 16 따뜻한 말 한마디
변화와 소통 전문가, 김창욱의 조언

노동 현장과 정책 이야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20 중장년 희망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 성공기, 황규영 님



- 24 청년 불패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성공기, 윤지영·유진혁 님
- 28 우리 시대 명인을 찾아서
현대도금 윤희탁 대표
- 32 정책 돋보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 36 정책 보고서
600일 동안 걸어온 길
- 40 잡툰
내일개발산업 김과장의 톡톡툰
- 42 고용노동 뉴스



상생협력, 가치창출, 미래성장 이야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48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주)마을아카이브
- 52 해피 투게더
웅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 56 하우투 워라벨
메조미디어
- 60 즐거운 나의 회사
대선주조(주)
- 64 일자리 가이드
국가기술자격검정 일정 안내
- 66 내일 직업 사전
첨단과학기술 분야
- 70 SOS 고민 상담소
신입사원을 위한 친절한 Q&A



여가생활 이야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 72 옛 직업을 찾아서
인력거꾼
- 74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문화 콘텐츠 추천
- 76 동의業보감
손목결절증
- 78 스마트 재테크
연령별 재테크 포트폴리오
- 80 내일스타그램
-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2월호 <내일>
 통권 강남 라00389(통권 526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라면?

'테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취업성공패 키지에 참가해 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의 인터뷰 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지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노동자라면?

'정책 돋보기'에서 어려운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 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퇴직자에게만 주었던 체당금 지원이 재직자로 확대되고, 관련 절차도 간소해 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현명한 해법을
찾는 이들이라면?

'해피 투게더'에서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했습 니다. 십시일반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경비원과 미화원 인원 감축이 아닌 고용 안정을 유지한 경 남 양산 응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사례를 살 펴보길 권합니다.



2019년

2월 이야기

겨울이 지나가는 자리,
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찬바람에 뽀뽀 옷깃을 여미던 한겨울이 지나고
이제 곧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시기,
2월은 계절의 현격한 변화 때문인지
조금 짧은 날들 때문인지
몸과 마음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때라,
직장인들은 지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때라
더 바쁘겠지요.

고용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2월을 응원합니다.
함께 어깨 걸고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청년이여!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성큼성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오늘의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준비생의 하루하루는 희뿌연 안갯속을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건만 결과가 언제나 핑크빛 미래는 아니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좌절이 결코 내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미국의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 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이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그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흑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다고 절대 움츠러들지 마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성큼성큼 힘찬 발걸음을 내 디터보아요. 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들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부터 입사, 장기근속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하고픈 청년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란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튼튼한 디딤돌을 선보입니다.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로 나서는 길목길목마다 꼭 필요한 징검다리를 세심하게 놓았습니다.

글 권주희



구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의 클린카드로 발급·지급되며 유희, 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지원 자격

- 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고려할 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3원, 건강보험료로 확인 예정)
-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며, 지자체 청년수당과 동시·순차 수급 모두 제한됨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월단위 지원금 50만 원 지급(6개월간)하며, 수급 중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급(50만 원, 3개월 근속취업 시)

신청 방법

- 시기: 3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상시 접수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전화1350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추가 혜택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요청 시 취업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이 곧 복지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고용노동부의 종합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상담을 통해 자신을 진단하고 진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직업 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를 지원받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 기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동행면접' 실시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라면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구직에 성공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내기 직장인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새내기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은 물론 상대적 연봉이나 복지격차를 이유로 구직자들의 기피 현상과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의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해줍니다.



지원 자격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 매월 12만 5,000원 납입하여, 2년간 300만 원 적립
- 기업: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적립금도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의 자비부담은 없음)
- 고용노동부: 2년간 900만 원 적립

→ 2년 후 청년에게 총 1,600만 원이 지급됨, 3년형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청년 600만 원 (16만 5,000원*3년),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각 적립하여 3,000만 원이 청년에게 지급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참여 신청을 해야만 가입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싶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우리 회사에 청년 직원을 뽑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단, 사행·유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 요건

- 기업 규모별로 최저 고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며,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한도

-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분기단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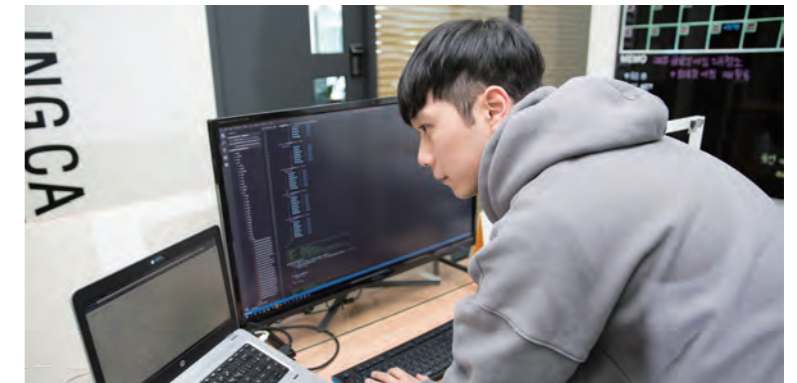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명한 조력자와 함께라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손민규 님

손민규 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하철역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는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참 많이 바뀌었다고요. 오늘도 경쾌한 발걸음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그를 따라가봤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웹개발자의 꿈을 이룬 행복한 청년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글 권주희 / 사진 장윤경



꿈은 실현하는 거야

“웹개발자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IT학과를 선택했구요. 그런데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것과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손민규 씨는 웹개발자를 꿈꾸었지만 꿈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던 차에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있었지만 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을 두드리자 가장 먼저 취업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상담 결과, 웹개발자가 제 적성에 맞는다는 답을 주셨어요. 막연하게 되고 싶었던 분야였는데 적성과도 일치한다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웹개발자로서 기본기를 갖추는 데 힘썼습니다.”

손민규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 취업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취업알선을 모두 원활하게 마쳤지요.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다

손민규 씨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부분은 바로 직업훈련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웠음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업훈련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 강사는 쉽고 재미있게 웹개발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참여했던 직업훈련은 '빅데이터 기반 자바 개발자 양성과정'이었는데, 참가자들의 이력은 실로 다양했습니다. 웹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유치원 교사와 같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30% 정도가 웹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직업훈련 강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했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었기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질 수 있었고 때로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의기투합

“6개월 동안의 직업훈련이 끝나고 바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그룹스터디를 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손민규 씨는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조건, 직무 등이 두루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가 취업성공패키지에 가장 감사를 느끼는 것은 바로 상담사를 통한 이력서 지원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지원하면 성공률은 그리 높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그룹스터디를 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 불안한 마음도 컸고요. 그런데 상담사가 추천해주는 기업은 우선 믿을 만했고, 이력서를 지원하면 서류 통과와 면접 기회가 이전보다 많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신나는 플랫폼도 바로 상담사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배들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프론트엔드 파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 설계는 선배들이 담당하고 저는 세분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선배들처럼 프로젝트 리더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난해한 프로그램 언어를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하고 있지만 손민규 씨의 표정은 환하게 빛납니다. 어제는 힘들었던 프로그램이 오늘은 쉽게 해결되고, 내일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으니 매일이 신날 수밖에요. 그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다만,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꿈을 이루리라.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취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 I (만 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 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II (만 18~69세 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변화와 소통 전문가, 김창옥의 조언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취업준비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 맞나?” “과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까?”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의 저서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정리 편집실
출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김창옥 지음)

셀프텔러 ————— 내 안의 소리를 들어라

Self-teller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일도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된 걸까, 남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삶에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이유를 밖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내 걸음걸이를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길 그만 둘래.’ ‘이 동네는 나와 맞지 않으니까 떠날래.’ 그래서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만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나 자신 안에 갇혀 있던 나를 밖으로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머리에서, 때로는 가슴 안에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셀프텔러’의 목소리입니다. 셀프텔러는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목소리가 인생의 방향키를 움직일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평소시에는 말을 걸지 않지만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말을 걸어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봅시다.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이런 셀프텔러가 있는 반면 이런 셀프텔러도 있습니다. “아, 짜증나, 어쩐지 요즘 별일 없이 잠잠하다 했다. 이럴 줄 알았지.” 두 부류의 셀프텔러 중 나는 어떤 쪽인가요? 혹 부정적인 셀프텔러라면 스스로를 돌아보길 권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사랑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소리부터 만나야 합니다. 나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암기하고 자격증을 따고 지식을 얻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공부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셀프케어 ————— 내 스스로를 돌보자

Self-care

어른들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케어'인데요, 케어와 매니지먼트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과 나를 관리하는 것은 거의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만 가능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깊은 연민으로 나를 안아주는 것이지요.

기억은 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둘러싼 근막에도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일수록 우리 몸과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신기하게도 체온이 1도 올라갈 때 그 기억이 녹는데, 포옹을 하면 정서적 온도와 몸의 온도가 올라가 기억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안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치된 상처가 문제인 것이죠. 셀프케어는 이렇게 방치된 상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힘든 시기를 건너온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길 권합니다. 평가 잣대만 부여잡지 말고, 보상으로 대충 넘길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었으니까 해외여행 가고 쇼핑물 장바구니에 넣어둔 물건을 사기보다는 평상시에 스스로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10퍼센트만 힘을 빼면 넘어져도 덜 다친다고 합니다. 계속 힘을 주면 그 누구라도 힘듭니다. 놓는 법, 쉬는 법, 힘을 빼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셀프이슈티 ————— 나를 소중하게 아끼자

Self-esteem

자존감을 영어로 '셀프이슈티'라고 합니다. '이슈티'는 '중요하게 여기다', '존경하다', '존중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셀프'가 붙으니까 명확한 의미가 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 잘났다고 믿거나 잘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쉽게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더 잘난 비교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소중해'라는 마음이죠.

자존감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은 셀프인 것처럼 자존감도 셀프입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내 삶의 온갖 핑계를 댄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인간관계란 완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더 완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도, 연인도, 모든 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완전한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셀프디벨롭먼트 ————— 진정한 어른이 되자

Self-development

인간에게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이 있습니다. 관계의 성숙, 생각의 성숙, 행위의 성숙입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겸허히 인정해 그 바탕이 된 힘으로 삶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죽기 전에 논할 수 있는 마지막 단어가 아닐까요? 그러니 그 전까진 어떤 것도 결정짓지 말고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되지 않았다 해도 실패라고 말하긴 이릅니다. 잘되지 않았다면 왜 안 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를 잃고 다른 걸 얻은 거죠.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살지 않은 삶이 실패인 것이지, 정말 진심을 다해본 인생에선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는 제목은 낯설지만 꽤 친숙합니다. 영화 <조스>에서 식인상어가 나타날 때 쓰인 삽입곡이거든요. 드보르자크는 이 부분에서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캔필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저편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신세계로부터'의 공포스런 도입부를 지나면 곧 힘차고 용맹한 개선곡을 만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세계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에 되지 않는 법, 나를 찾고 지키고 사랑하고 성숙시키며 삶의 중심을 나로 세우길 권합니다.

신은 직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든 것을 제외하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직선은 없습니다. 풀잎에 맺힌 물방울,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늘의 구름, 꽃잎 하나하나... 다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사람의 생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직선이라기보다 원형 또는 원형의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건가요?>

그동안 변화와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저자는 진료와 취업 등 인생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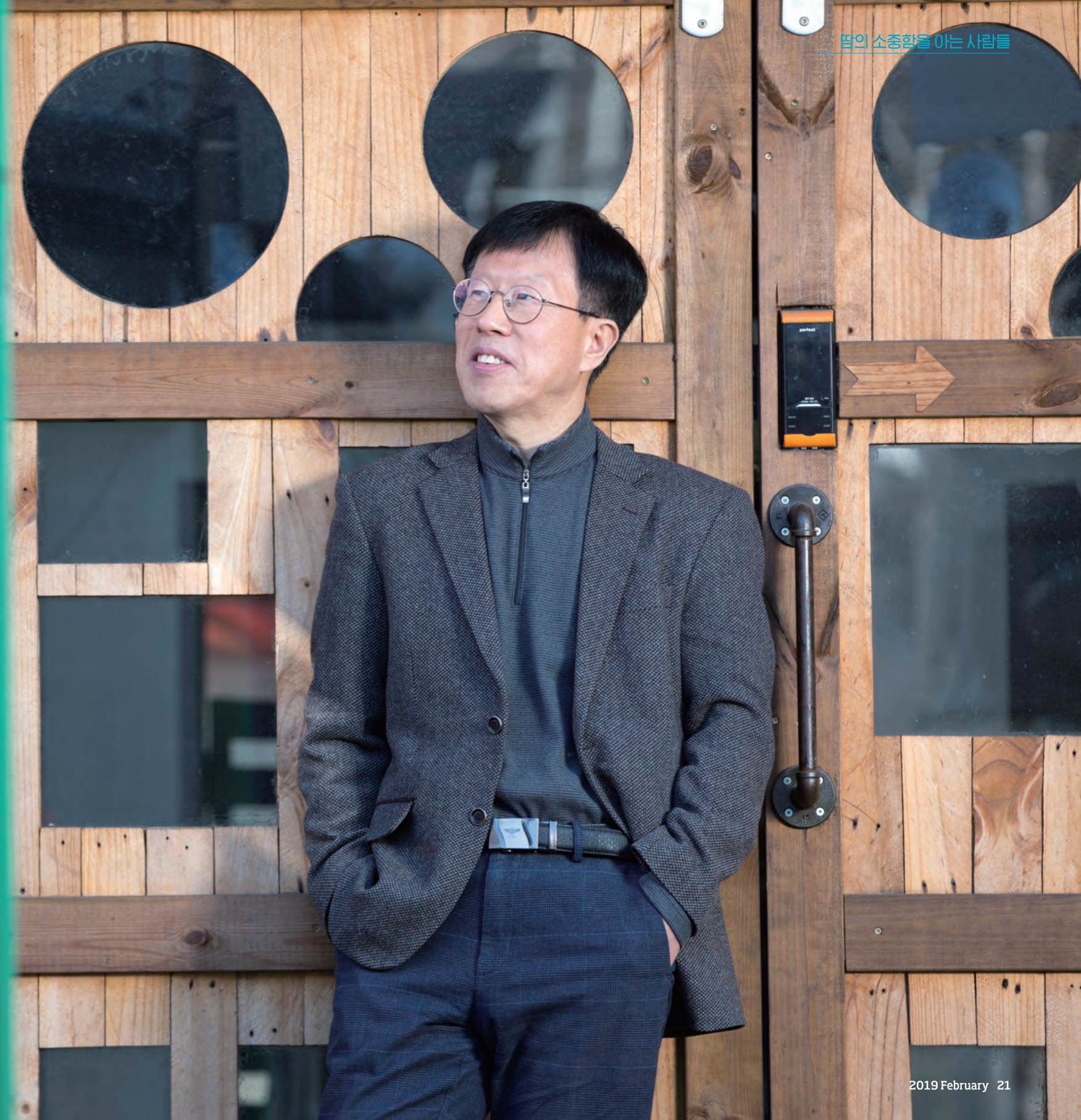
도전정신이 있는 한

나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황규영 님

가끔은 일하는 기쁨보다는 일의 무게로 버겁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불황으로 평생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때, 황규영 씨는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무게가 자신을 지탱해준 중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온 지금, 그는 말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글 박채림 / 사진 장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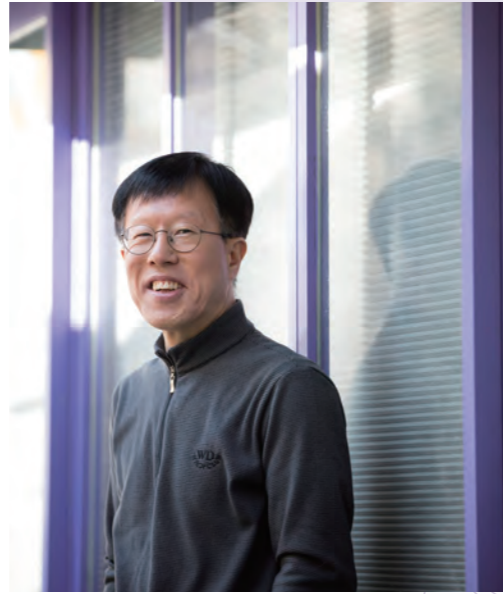
갑자기 찾아온 은퇴라는 시련

황규영 씨는 3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불황으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고 생각보다 빠른 퇴직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쉬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부지런히 살아온 황규영 씨에게 휴식은 길고 무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노사발전재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황규영 씨는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아가 적극적인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황규영 씨의 경험과 적성, 장점, 하고 싶은 일을 상담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은퇴자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 기 살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희망센터에서 총 네 가지의 교육을 수료하며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바로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열린상담센터를 찾아 3회에 걸친 인생3모작 상담과 교육을 받았죠. 새로운 직장에 도전할 용기가 비로소 생겼습니다.”

취업 컨설팅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구로구청을 방문해 일자리센터에 구직 신청을 했습니다. 워크넷에 이력서를 올리고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평생학습 컨설턴트 양성교육, 사회적기업의 바리스타·제과제빵 체험,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도 했지요. 평생교육사와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 강의도 틈틈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답이었을까요? 우연히 성동구청에서 2018 중장년일자리박람회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느낌이 왔지요. 처음 참가하는 일자리박람회였지만 경험도 쌓고 그동안 준비했던 취업 내용도 검증할 겸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자리박람회장에서 바로 두 곳의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 만난 기업에서 채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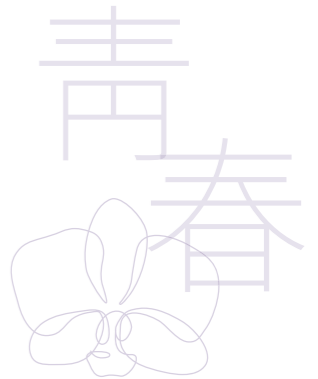


내 삶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일사천리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고 황규영 씨는 2018년 11월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도 잠시. 황규영 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도전정신만 있다면 또 한 번의 전성기는 열리게 마련이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가까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찾아가세요. 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프로그램도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중장년일자리박람회도 틈틈이 눈여겨 볼 것을 권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안내뿐 아니라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지요.”

은퇴를 경험한 후 황규영 씨의 삶은 오히려 더 바쁘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출퇴근 길에는 이전부터 공부해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지요.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기 위해 바쁘게 노력합니다. 삶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민반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죠. 그리고 황규영 씨는 말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스스로 찾는 자에게 열려 있다고요. 어떤 ‘일’이든 원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활짝 꽃 피우세요, 봄날의 청춘

‘도전’이라는 단어는 늘 가슴 뛰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설렘만큼이나 두려움과 걱정도 따릅니다.
 그럴 때 도전을 함께해줄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취업이라는 문턱을 넘어선 오늘의 눈부신 청춘을 만나봅시다.

글 박채림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첫발을 내딛다

요즘 한창 일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윤지영 씨. 그녀는 현재 제약회사 생산본부의 밸리데이션 (Validation)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이란 특정한 공정과 방법, 설비 등 미리 설정된 판정 기준에 맞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데다가 첫 직장생활이라 낯설고 어려울 법한데, 그녀의 답변은 밝고 명랑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뭐든 재미있고 설레요.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회사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아직은 실감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대학일자리센터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3학년 무렵부터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취업 관련 강의를 여러 군데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쁘기는 하지만 성과는 없어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4학년이 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고 토익 성적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외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일자리센터의 도움을 받으니, 자신이 가진 기본 역량과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역량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취업 준비에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재발견

그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조금 더 빨리 대학일자리센터를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회사에 입사해서 실무를 진행하는 데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면접 강의와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수업 등의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저에게는 모의 면접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컨설턴트님의 피드백을 들으며 그전까지는 몰랐던 제 단점을 깨닫게 된 거죠. 면접관의 시선으로 저의 말하는 습관, 표정이나 동작 등을 살펴보니 개선할 점이 뚜렷해졌습니다.”

또 하나 그녀가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50여 곳에 이르는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면접까지 진행된 회사는 10여 곳 남짓. 서류에 서부터 탈락하니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러다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그때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어떤 만남이든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일자리센터와의 만남도 그렇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와의 만남도 참 신기했어요. 사실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포기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했을 때 한 면접관님이 저를 눈여겨 보셨고 그 인연으로 취업이 되었어요. 제가 최초에 지원한 직무와 다른 직무인데 제 열정이 인상 깊어서 추천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무에 도전했고 무사히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경험한 윤지영 씨. 그녀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노력하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이 윤지영 씨의 내일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윤지영 님은

- 충북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충북대학교 환경생명학과 졸업
- 대학일자리센터의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P 제약회사 취업 성공





스텝 바이 스텝! 체계적인 준비가 답입니다

목표 의식으로 뚝뚝 뚫힌 유진혁 님은

- 동의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동의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목표 설정 후 필요한 실무역량 키워 한국전기안전공사 취업 성공

나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다

“대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취업은 제게 막연한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 선배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를 추천받았습니다. 제대도 했으니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난생처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진혁 씨. 취업준비생일 때 그의 모습은 많은 취업준비생이 그러하듯 막막하고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유진혁 씨는 취업 준비를 결심하던 첫 순간 대학일자리센터를 만났기에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시 복장과 표정, 화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준비 입문 프로그램(CAP)에서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점 관리를 병행해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취업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적성 검사를 통해 저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일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컨설턴트님이 공기업을 추천해주셨고요. 그때부터 공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따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어요. 제 적성에 맞는 분야를 정하고 준비를 하니 결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시행착오가 많았을 텐데, 한 번에 길을 찾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다

유진혁 씨는 대학일자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BOB 취업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스테디원들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재를 함께 풀며 모의 면접과 토론 면접을 준비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라 보니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취업 준비를 하는 내내 위로와 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등을 하나하나 뚫고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컨설턴트님의 조언에 따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교육원에서 플랜트발전설비 설계과정도 이수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덕분에 두 달 동안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소정의 수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도 취업 준비를 하면 가장 먼저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하길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한 유진혁 씨. 아마 정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준비를 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불투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공기업이라는 명확한 길을 정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현재,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라 아니라 다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진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5년 후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음 목표도 분명 성공할 거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윤지영·유진혁 님이

말하는 빛나는

청춘을 위한

취업의 꿀팁!

윤지영 절대 지지 마세요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낙방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에 빠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공부에만 매달렸고요. 그렇지만 이 긴 싸움을 계속할 힘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자신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싶을 땐 대학일자리센터에 가보세요. 연륜으로 무장한 멘토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거예요.

유진혁 취업 후에도 인연의 끈을 놓지 마세요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린 대학일자리센터와 컨설턴트님은 지금도 제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멘토가 필요했고, 컨설턴트님께서 그런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좌충우돌 사회초년생이 무사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운명을 넘어 숙명으로, 도금기능장의 삶

현대도금 윤희탁 대표

경기도 양주에 자리한 현대도금. ‘윙’ 하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재료들은 윤희탁 대표의 손길을 만나 반짝이는 금빛 옷을 입습니다. 윤희탁 대표가 41년 동안 고집스레 걸어온 길, 도금장인의 삶입니다.

글 박향아 / 사진 장윤경





운명이 숙명이 되던 순간

윤희탁 대표는 어린 나이였던 15살 때 처음 ‘도금’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41년이란 시간 동안 도금 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18살 때였나? 다니던 도금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부품의 도금 작업을 수주하게 됐어요.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자동차였는데, 비록 저는 보조 일을 했지만 수출에 일조한다는 생각에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타의가 아닌 제 선택으로 ‘도금 기술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나중에 내 회사를 차리면 ‘현대’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윤희탁 대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운명’이 스스로가 선택한 ‘숙명’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단단한 신뢰

탄탄한 기술력과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현대도금. 액세서리나 가구 부품을 시작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주화, 공항변전설비, 자동차 전장 등으로 사업 영역도 점차 확대됐습니다.

인천공항 건설 당시 변전설비 은 도금, 올림픽대교 조형물에 들어가는 부품의 니켈 도금, 한국조폐공사 최초 수출 주화 도금 작업도 현대도금을 통해 이뤄졌어요. 현대도금의 이름으로 쌓아온 크고 작은 성과들. 그중에서도 2010년 일본 TDK사의 휴대폰 니켈 도금 작업은 윤희탁 대표와 직원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휴대폰 저항 제품의 니켈 도금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2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 공정 이거든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지만, 기존 업체들의 방식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오랜 연구와 실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무전해 기술을 이용해 공정 과정을 14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죠.”

남들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현



올림픽 메달에 찬란한 금빛을 더하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메달이 수여되는 찰나는 올림픽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죠. 그 영광의 순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렸던 이가 있으니, 바로 현대도금의 윤희탁 대표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순은 580g에 6g 이상의 금을 입히는 표면 처리를 통해 탄생하는데, 하나의 메달에 금빛을 입히는 데에만 약 2시간 30분 정도의 공정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 메달이 무려 270여 개. 이후 열릴 패럴림픽 메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면, 수개월을 고스란히 쏟아야 하는 치열한 작업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게 있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금메달에 지난 41년간의 땀과 노력, 기술이 담긴 거니까요.”

대도금은 6개의 특허를 소유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기술을 넘어 예술이 될 때까지

윤희탁 대표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이달의 기능한 국인’에 선정됐어요. 2016년 기능장이 된 후로 3년 만에 이런 성과였죠. “사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했어요. 혼자 시작해서 3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기업이 된 만큼, 그들의 삶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2016년에 화성폴리텍대학에 진학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배움의 소중함을 직접 경험한 윤희탁 대표는, 최근에는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직원의 대학 진학을 지원

하고,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성폴리텍대학 학생의 현장 교육을 책임지기도 했죠.

“남들이 하는 방식을 조금 더 숙련되게 하는 것은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죠. 나뭇잎, 도토리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금을 덧입히는 작업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현대도금의 제품이 기술을 넘어 예술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이기에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밀린 임금을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회사는 가동되더라도 퇴직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글 박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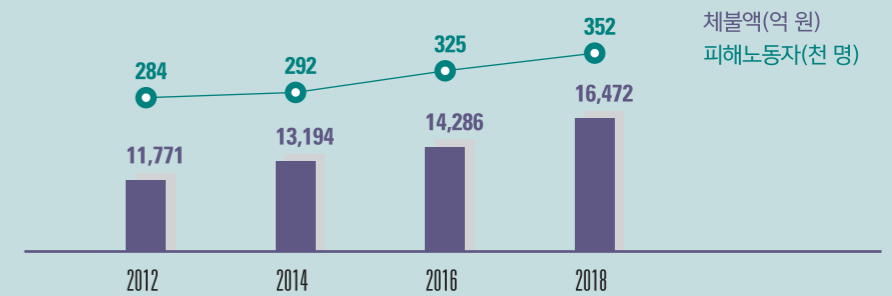


임금체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로 미국과 일본의 0.2~0.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 역시 2012년 28만 4,000명(1조 1,771억 원)에서 2018년 35만 2,000명(1조 6,472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퇴직자에게만 주었던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악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된 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임금체불 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합니다.

▼ 임금체불 추이



▼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편 전	개편 후
일반체당금	지원 한도	1,800만 원	2,100만 원
	지원 대상	퇴직자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소액체당금	지원 한도	400만 원	1,000만 원
	처리 기간	7개월	2개월

재직자도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도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2019년 7월(관련 법 개정일에 따라 유동적)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관련 법 개정일에 따라 유동적)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노동자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은 커집니다

미린 임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생활이 어려운 피해 노동자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확 높였습니다. 현재 400만 원 수준에서 2019년 7월부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2020년 중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한도도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편,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도 쉽고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불 사실 조사와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소액체당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요. 기존의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소중한 임금을 보호합니다

간혹 체당금만 믿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나쁜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는 경우 체당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가능한 과제는 실행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국세체납처분절차, 부과금 도입,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는 빠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이자 소중한 땀의 결실인 임금을 신속히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일하는 우리를 위한 소중한 약속

고용정책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수립 후 600일.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고용정책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노력은 노동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글 박재림



2018년
상용직 취업자 수
1,377만 명

2018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43만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수
17.2만 명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땀 흘리는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노동자가 저마다 하는 일은 달라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수형태 직종이나 예술가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60%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신중년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12만 8,000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중년에 대해서도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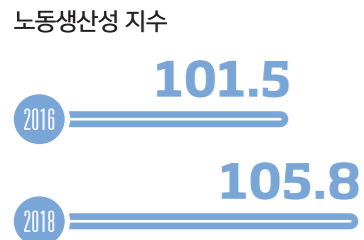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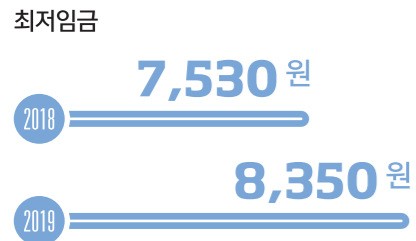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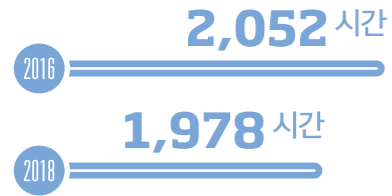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17만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현장민생을 살피고 사회 서비스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피로사회’에서 ‘행복사회’로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은 일상과 업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이와 같은 변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줄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부터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이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연간 노동시간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30여 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30여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
4년 만에 첫 감소

4년

2018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수

0명



일터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도록,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하는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면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장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의 벌금형 상한 또한 10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나 하청 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을 제한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현장의 휴일공사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지난 2016년 10명, 2017년 17명 등 큰 문제로 지적되어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가 합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고 그 결과 2018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내일개발산업에 근무하는 김고용 과장을 주인공으로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일개발산업 김과장의 툭툭툭

그림 정민영



이재갑 장관, 혁신 인재 양성하는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화요일, 신기술분야 전문 훈련기관인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산업인력과는 다른 신기술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살펴보고, 더불어 훈련생과 기업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스마트공장 관련 학과인 임베디드시스템과, 빅데이터 관련 학과인 데이터융합SW과, 의료바이오 관련 학과인 생명의료시스템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3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 설계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형 실습을 통해 기존 훈련기관의 과정과 차별화되어 있다.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을 방문한 이재갑 장관은 생명의료시스템과의 바이오분석 실습 및 바이오시료 전처리 시연, 데이터융합SW과의 빅데이터 및 핀테크 시연, 임베디드시스템과의 스마트팩토리 쇼룸 관람 및 시연 순으로 학과를 시찰하였다. 이후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융합기술교육원장, 교수 및 재학생,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의 특징, 재학생 소감, 수료생 채용 기업의 의견 등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은 “직업훈련은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려서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였다.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1월 22일 화요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가로 민간고용서비스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증평가에서는 2018년 8월 공고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민간위탁기관 282개소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71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정부가 주는 인증마크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활용할 수 있어,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구직자에게도 더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미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여, 기관의 역량과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인증평가는 종합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 부문 사업부터 시작하였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앞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4월 이후, 2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상향평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 등 컨설팅·과정평가·종사자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 5,000명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 5,000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했던 규모 20만 5,000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 5,000명 중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000명으로, 전환 결정과 전환 완료의 인원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 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노동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 결정은 연차별 전환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4.3%이고, 경쟁 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2019. 1. 25.
▶ 문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 사무관(044-202-7650)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확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2018년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선정 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도, 보육수요 충족률, 이용 편리한 주거지 인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2019. 2. 7.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서유리 사무관(044-202-7480)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4개월(2018.9.10.~2019.1.9.)간 총 122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신고(101건)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 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에만 들어 운영 중이며, 하루 한 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접수된 122건 중 익명신고(73건)가 실명신고(49건)보다 많았으며, 차별 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63건) 신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배치 및 승진(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26건), 정년·퇴직 및 해고(22건) 순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거나, 재발 방지 교육, 개선 지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 진정 등을 권유하며 적극 조치하였다.

▶ 2019. 2. 14.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박영 서기관(044-202-7469)

해빙기를 맞아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감독

고용노동부는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를 비롯한 각종 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이나 해빙기 위험현장은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행·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2019. 2. 17.
▶ 문의: 산업안전과
최재훈 사무관(044-202-7724)



지역민과 여행자의 즐거운 동행

(주)마을아카이브



산책을 하다 문득,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도 가만 들여다보면 보물 같은 장소가 숨어 있습니다.
 2018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주)마을아카이브는 바로 이런 동네 명소를 발굴해 여행을 떠납니다.

글 전수아 / 사진 장윤경

취향 따라 즐기는 골목 여행

마을아카이브는 동네 주민과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마을여행 전문 플랫폼입니다. 주 무대는 동북4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여기에 군산이나 시흥, 도시재생 선진 지역 등으로 여행지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마을여행기획단을 운영해 마을여행 코스를 개발하는데요, 학교나 기업 등 단체 여행 신청이 들어오면 어울리는 투어 코스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투어를 신청했다면, 동네 곳곳에 있는 역사 체험 장소를 여행하는 식입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장소를 들리기도 하지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투어는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고 인근의 명소와 생활 시설을 찾아갑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여행 겸 희망하는 대학을 사전 답사하는 셈이죠.

어르신들로부터 수집한 우리 동네 이야기

유환주 대표가 마을아카이브라는 기업의 문을 연 것은 2018년 4월이지만, 그는 2017년부터 마을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교육여행을 기획하고 역사 관련 강의를 하던 유환주 대표는 도봉구 도서관에서 역사 관련 자료를 찾다가 문득, ‘이 동네의 역사적 장소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때마다 동북4구의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마을여행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유환주 대표는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며 공정여행과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구상했고 얼마 후 도봉구청에서 진행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마을여행을 주제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여행 코스를 설계하고 파일럿 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마을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마을여행이라고 하면, 둘러볼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 골목 골목에 담긴 이야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래 거주한 도봉구의 이야기를 발굴해보자 싶어, 여기서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을 찾아보고 오래된 구전, 지명의 유래, 그분들의 청소년기 시절 풍경 등에 대한 스토리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재미난 이야기는 마을여행을 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마을해설사들이 일종의 가이드가 돼 여행자들을 마을 곳곳으로 안내합니다. 장소 설명은 물론 골목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하죠. 마을해설사로 활약하는 주민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여행자들이 찾아온 마을 경제는 조금씩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유 대표가 구상한 마을여행의 가치입니다.

지역민과 여행자들이 함께 즐겁도록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여행자들이 골목길로 유입되면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마을 같이 여행지로 유명한 곳의 거주민들이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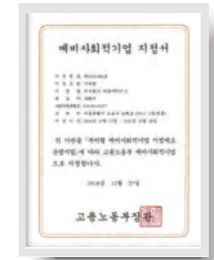
“마을여행은 여행지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여행지역에서의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지향합니다. 마을아카이브는 주민들이 지역 자산을 여행자와 공유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여행이 여행자와 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마을아카이브에는 마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여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가능한 소리를 내지 말자’, ‘주민들의 통로를 막지 말자’ 등입니다. 마을해설사들이 이러한 규칙에 따라 여행자를 통솔합니다. 또한 무선송수신기를 이용해 해설을 또렷하게 전달하면서도 주변 이웃의 소음 피해는 최소화합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

마을아카이브는 2018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요, 마을아카이브는 이러한 지원을 발판 삼아 보다 야심 찬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문화생활 회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연을 함께 본다거나 궁궐 투어를 하는 식이죠. 마을아카이브는 이러한 점에 착안, 직장인 대상 워라벨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한적한 궁궐이나, 주변 골목 골목을 색다른 이야기와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시민독립군 트립’, ‘쌍리단길’이라 불리는 쌍문역 주변의 작지만 개성 넘치는 식당을 투어하는 ‘식스팩(食’s Package)’ 등 준비 중인 아이디어만도 여러 개. 이 프로그램들은 조만간 홈페이지와 소셜커머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요. 유환주 대표는 도봉구에 밀집한 작은 양말공장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양말 투어로, 나름의 지역 특산물인 양말을 활용한 체험, 그리고 장터 이벤트 등 재미난 아이템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을아카이브의 바람이 녹아든 아이디어죠. 언젠가는 수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디지털 박물관 형태로 소장, 공유하고 싶다는 유환주 대표.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주 무대인 동북4구뿐 아니라 전국의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전국구 마을여행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여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욱 넓어질 겁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랑한 전국의 동네 명소를 색다른 이야기와 함께 둘러보는 시간. 그때가 오기까지, 마을아카이브의 즐거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 마을아카이브의 마을여행 프로그램 ~~~~~



동북4구 마을여행

마을해설사와 함께 여행자와 동네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여행을 떠납니다. 동북4구에서 활약한 마을해설사만 해도 40여 명, 동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여행이지요.



대학 연계 마을여행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탐방 프로그램이에요. 평소 궁금했던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고 주변의 마을과 시설 인프라를 확인하며 각자의 대학생활을 미리 그려봅니다.



선진지 탐방 여행

도시재생 사례를 걸으면서 배워봅니다. 거주민들이 전하는 ‘우리 동네 발전사’를 들어보며 참가자들은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힌트를 얻지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요

웅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늘어난 관리비를 조금씩 부담해 경비원과 미화원을 줄이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들려 온 훈훈한 소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상생 해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 차유미 / 사진 장윤경

참한 사람이 참한 도시를 만든다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원 10명과 미화원 9명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경남 양산시 삼호동의 웅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따뜻한 소식 때문인지 오가는 주민들의 표정도 취재팀을 맞는 경비원들의 미소도 환하게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감원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물론 웅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권봉조 소장은 “관리비를 올리지 않고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인원 감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시했습니다. “인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세대당 매월 4,100원가량의 관리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비 인상이나 인원 감원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오랜 논의 끝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권봉조 소장은 관리비 인상보다는 인원 감원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12월 초에 7일 동안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987가구 중 806가구가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 가구의 98%에 달하는 795가구가 관리비 인상을 감내하겠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구가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며 관리비 인상을 결정한 것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올해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영기 경비원은 작년 연말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는 2007년 웅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가 준공하면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오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게 느껴졌지요.

“사실 연말이 되면 늘 불안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어요. TV나 신문을 보면 여기저기서 경비원 감원 소식이 하루를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 중 누군가는 나가게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는 근무한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다 보니 ‘내가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 없으면 저희가 안 돼요”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찰 중에 만난 한 주민은 “평소에 너무 감사했는데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해요. 그는 그때 맞잡은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더하는 사람들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 웅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부담없는 십시일반

사실 투표 기간 초반부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그냥 관리비 올리면 되지, 뭘 이런 걸 물어요?”라고 했더니 말입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선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만나 “좀 어렵다고 사람부터 자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박진영 회장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입주민의 온정을 믿었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을 선택한 분들이 60~70% 정도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만, 이틀 만에 80%가 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원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많은 분이 잘했다고 격려해주시고 계세요. 경비원이나 미화원이 계셔서 좋은 건 주민들이에요. 더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거든요. 한 달에 4,100원! 사실 크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 너무 삭막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을 받으니 오히려 민망하답니다.”

일부 주민은 투표용지 뒷면에 ‘경비원 아저씨 사랑합니다’, ‘함께 삽시다’, ‘아버지 같은 분 해고는 절대 안 돼요’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곳곳을 채운 사람 냄새 가득한 글귀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4년이 됩니다.
근무하는 동안 먼저
인사해주시고 친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원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불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철 경비원(69세) -



격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퇴근하면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습니다.
동료들과 얘기해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주민의 결단으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 정진관 경비원(69세) -



회사 생활하다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일반 직장보다 달리
주민의 삶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더 그렇고요.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 속에
있어서 더 일할 맛이 납니다.

- 박명수 경비원(63세) -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메조미디어



MezzoMedia



잠자는 시간을 빼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018년 워라벨 실천 기업으로 선정된 메조미디어가 ‘직원들의 시간’을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 전수아 / 사진 장윤경

한 달에 한 번 낮에 퇴근

“외근 나와서 바쁘게 길을 걷다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급하게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던 적 있으시죠? 나도 하루쯤은 저렇게 여유로운 낮을 누리보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우리 회사의 ‘집에만 DAY’는 이런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됐어요.” 5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김연철 대리는 동기들과 의견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낮 퇴근’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면서도 ‘과연 받아들여질까?’ 싶었던 것과 달리, 임원진의 ‘쿨한’ 결정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집에만 DAY’가 생겼고, 올해부터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4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미디어 렘으로 문을 연 메조미디어는 고객이 최상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광고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능력 중에서도 특히 창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직군인데요, 그래서 메조미디어는 직원들의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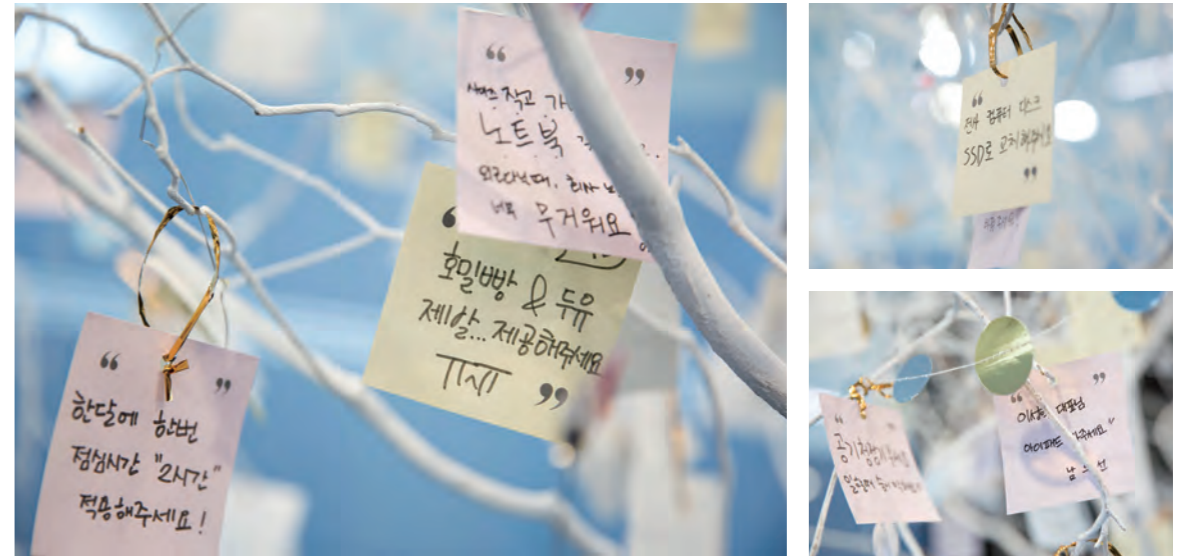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근무 시간과 성과가 비례한다고 보지 않아요.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구성원의 안정이 일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일이 있어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일을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인사팀 김연재 사원은 메조미디어의 ‘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소개해주었습니다. ‘집에만 DAY’는 조기 퇴근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휴가 신청 사유를 쓸 필요가 없고, 조직장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서 직원들이 매우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명 ‘반반차’라고 부르는 ‘시간단위 휴가’도 언급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로 특히 개인적인 행정 업무나 자녀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 씩은 무려 4주의 휴가와 휴가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근속자들이 꿈는 최고의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Mini Interview



바쁜 업무 중에 잠시나마 ‘십표’를 찍을 수 있는 ‘집에만 DAY’를 적극 애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평일 오후, 지인들과 여유 있게 만나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직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할 땐 업무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김연철 대리(디지털광고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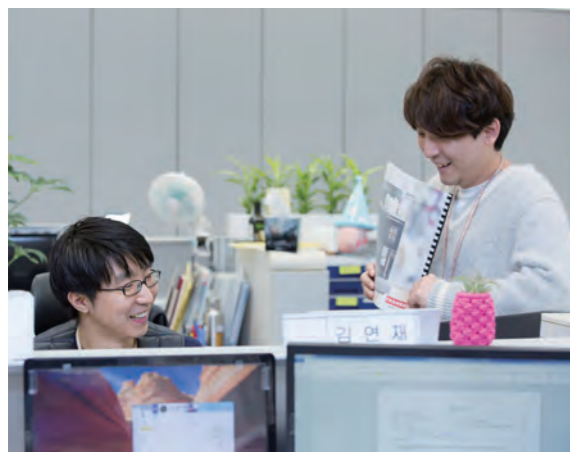
직원들과 함께 만드는 복지

메조미디어의 특별한 복지제도는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리급 직원들로 구성된 열린 협의회가 업무 틈틈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 달에 한번씩 임원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각종 복지제도는 물론, 직원 편의시설도 열린 협의회를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여름, 직원 수에 비해 정수기 얼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라운지에 제빙기가 들어왔고, 얼마 후 커피 머신도 생겼죠. 사내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또한 바로 반영돼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작은 의견이라도 회사에서 꼼꼼하게 들어주고,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의견에 꼼꼼하게 귀 기울이고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메조미디어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전 직원이 함께 모이는 ‘쉐어데이’를 열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다른 부서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직원 포상이나 새로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즐거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즐거운 성장의 선순환

메조미디어의 목표는 회사와 직원이 동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인재 육성 전략과 업무 경험을 통해 창의력 넘치는 업계 핵심 전문가로 성장한다면 회사 또한 업계 최고로 거듭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구성원들이 자기 역량과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조미디어의 이런 노력은 최근의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요. ‘워라밸’이 직원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도 필요한 가치임을 메조미디어가 훌륭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100년 기업의 비밀, 그곳에는 사람이 있다

대선주조(주)



‘소주’는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삶에 있어
좋은 친구로 자리해왔습니다.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주 제조업체 대선주조는 서민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에게도 소주같이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글 차유미 / 사진 장윤경

부산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사랑받다

대선주조는 1930년 부산 범일동에서 ‘대선양조’로 시작해 89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꼽힙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부산시, 2012)으로 선정됐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술인 ‘다이아 소주’를 포함한 ‘신세계 청주’, ‘선’ 등으로 지역 소비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대선주조의 경영철학은 품질제일주의입니다. 오랜 기간 소주 개발과 생산에 전념해온 만큼 품질과 맛에 대한 노하우와 자부심이 큼니다. 품질경영에 대한 신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마케팅팀 임광현 관리팀장은 오랜 세월 대선주조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품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선’ 소주는 부산 지역 주류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적도 있을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한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

속으로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받았으니 부산 시민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업주나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변모해가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관리팀장의 말처럼 소주에 길을 묻고 서민들 속에서 답을 찾으니 ‘서민의 소주, 부산의 소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다

최근 대선주조는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선 소주는 누적 판매량 2억 병을 돌파해 부산 소주 시장 업소점유율 69.2%를 탈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2014년부터는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급기야 2016년에는 영업이익에



서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으나 대선주조가 선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기간에 가장 먼저 사장님이 솔선수범하여 연봉을 50%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직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했습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응집된 힘으로 제품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던가요?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품 개발에 몰두한 결과 2017년 1월 대선 소주가 출시됐습니다. 신제품은 출시 7개월 만인 그해 8월, 부산 소주 시장 업소점유율 49.2%로 경쟁 업체를 제치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량 2억 병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물론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2018

년 임금단체협상 때에는 급여조정을 통해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고용창출에 있다

지난달 대선주조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수여식’에서 일자리창출지원 부문 유공 정부포상 대상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비결이 뭘까요? 임광현 관리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고용창출에 있다는 신념으로 정규직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채용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뿐 아니라 청년·여성·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열린 채용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실제로 대선주조는 지난 2년간 장년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정년퇴직자 4명을 재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90% 이상이 부산이나 경남에 연고를 두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재를 자랑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이 우리 회사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 회사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00년 기업을 향해 가다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은지 물으면 대부분 “100년 기업”이라고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역사를 이어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100년을 넘은 장수기업이 10군데에 그치고 5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이 전체 기업의 2% 정도라고 합니다.

대선주조는 올해로 창립 89해를 맞았습니다. 89년 동안 단 한 번의 구조조정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파업도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경영 위기가 왔을 때도 직원 복지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지원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일 자리를 넓히고, 안정적인 고용 여건을 조성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를 후원하고, 사회공헌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조가 그 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정신 덕분이 아닐까요?

Mini Interview

대선주조 지역 인재 채용 신입사원

안정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획마케팅팀 광지원 사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다른 기업에서 근무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서 집을 나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였어요.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러다 대선주조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도전했어요.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뿌리 내릴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든든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과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기획마케팅팀 성민재 사원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서울로 가야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전공인 디자인계열은 부산에서 취업의 문이 더 좁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한편으론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발전시키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대선주조에 입사해서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더 열심히 배워서 저도, 회사도, 부산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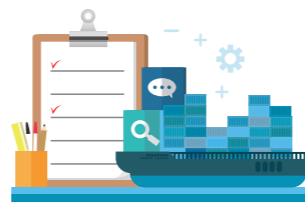
배우면 내 것 되는 국가기술 자격검정 일정



전통을 지키는 기술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해 문화재 수리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이지요. 문화재수리 기능자는 목조 건조물의 해체와 조립을 담당하는 대목수와 소목수, 석조물의 축조와 해체 및 보수를 담당하는 한식석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를 맡는 번와와공, 철물 관련 기술을 담당하는 철물공 외에도 조각공, 한식미장공 등이 있습니다.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수리기술자 시험과 달리, 수리기능자 부문 시험은 응시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고 한옥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물 선박의 수출입을 관장하는
검수사

검수사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선박에 담긴 화물이 다른 선박회사나 보낸 이로부터 받는 이에게 인도되기까지 검수표를 토대로 무역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업무를 수행하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수출 물량을 서류와 대조하고 수량과 적재 무게 등을 검증하는 직책입니다. 또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를 공증적 자료로 활용하여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증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검수사는 검수를 하는 전문 자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 자격 시험은 영어가 포함된 1차와 2차를 거쳐, 필기와 면접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지만 취업 분야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어 유망 직종으로 손꼽힙니다.

원서 접수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사

검량사는 선박 무역 시 국제 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산정·검측·계산하여 공증하는 직업입니다. 검량사는 선박 감정사와 검수사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사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관련 업무를, 검수사는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인수 증명 관련 업무를, 검량사는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니까요. 항만에 관련된 직업인 검량사, 검수사, 감정사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로, 무역 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 시설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 및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소방 설비와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지자는 소방직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되어 선호하는 자격시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대규모화 되고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요구에 부합하는 안전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방 인력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응시 자격은 소방기술사나 건축사, 전기설비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소방실무 경력을 일정 기준 이상 갖춘 자에 한합니다.

원서 접수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와 취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는 지난 2018년에만 전해에 비해 13.8% 증가하였는데요. 실무 기술을 바로 익힐 수 있고, 즉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3월을 맞아 접수를 시작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글 박채림 / 국가기술자격검정 접수처 www.q-net.or.kr

내일의 일상을 바꿀 직업

첨단과학기술 분야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우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구해야 하지요. ‘내일 직업 사전’이 여러분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소개합니다.

글 전수아



의료용로봇전문가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엔지니어

로봇수술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보다 정교하고, 출혈이 적으며 회복도 빠른 로봇수술은 환자들의 훌륭한 선택지가 돼주고 있지요. 의료용로봇전문가는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능형 로봇들, 가령 수술용 로봇이나 재활을 돕는 로봇, 간호 로봇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로봇공학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의료현장에서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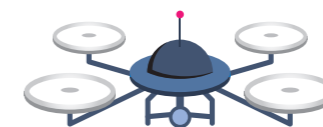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엔지니어는 의료용로봇전문가와 닮은 듯 다른 직군입니다. 의료기기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설계·개발하는 직업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가상현실개발자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처음 도입된 분야는 게임인데요, 사용자가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연습,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 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개발자는 3D 모델링 및 VRML(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 등의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상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메디컬빅데이터전문가

세계 도처에서 매일 새로운 병이 나타나고, 익숙한 병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환자와 의사를 당황하게 합니다. 새로운 병을 막거나, 익히 아는 병이라도 더욱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들은 선진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봅니다. 만약 의료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의료진은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메디컬빅데이터전문가는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이들의 직무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분류하고 둘째, 이들을 저장해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며 셋째, 가공된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해 의사와 환자에게 전달합니다.



드론조종사, 드론촬영감독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업무가 계획 중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한 무인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도가 높거나 위험해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띄워 촬영 또는 감시하는 임무를 준비 중이죠.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있는 전선이나 고압전선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기술입니다. 드론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드론 관련 직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조종사는 말 그대로 드론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종,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드론운항의 잠재적 위험이나 운항 시 장애물을 분석하고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드론운항관리사라는 직업도 있지요. 드론촬영감독은 드론을 활용해 항공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니다.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보다 창작자로서의 감각과 능력이 필요해,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꿈나무들이 드론 촬영 기술을 배우는 추세입니다.

미래의 드론전문가를 위한 베테랑 선배들의 조언



이중열
드론조종사
(JY비주얼 대표)

© 김정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이중열 대표는 드론 시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탐사나 측량 식생 촬영이라고 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특수 촬영까지 모든 것을 드론으로 진행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분야가 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드론이 다가갈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특수 촬영 분야의 의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하네요.

전망이 밝은 만큼, 드론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무게가 12kg이 넘는 드론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론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에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도전해볼 생각이라면 자격증 획득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론을 띄우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

이중열 대표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의 부설기관인 인천무인항공교육센터에서 드론교육팀의 지도조종자로도 활동 중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2017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바쁘기는 하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중열 대표지만, 주의 사항도 잊지 않습니다. 드론 촬영을 배우거나 조종을 연습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드론을 띄우면 안 된다고 해요. 이중열 대표도 드론을 처음 사용할 때 촬영 허가를 받는 일이 꽤 힘들었다고 합니다. "드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촬영을 허가받아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드론조종사 자격증이란?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입니다. 12kg 이상의 대형 드론 조종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지요. 취득 시험은 세 단계로 진행돼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되는 이론시험 후 합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 비행 경력 20시간을 이수합니다. 그런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이현수
드론촬영감독
(시네드론 촬영감독)

제1의 원칙은 안전 또 안전

이현수 촬영감독은 2010년 KBS <1박 2일>을 촬영하면서 국내 방송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장식한 드론 쇼 촬영에도 참여했지요. 베테랑 촬영감독인 그가 드론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십수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드론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촬영에 적합한 기성품이 없었습니다. 수가공을 해야 했지요. 카메라의 떨림을 잡아주는 '짐벌'도 직접 가공해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부품을 조합해 항공 촬영을 시도한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항공 촬영을 전보다는 편하게, 그리고 보다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드론 촬영을 시작하긴 했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근의 기류에 우려되는 바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기체라도 프로펠러가 있기에 추락 시 흥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종술과 촬영 감각 모두 익혀야

안전, 또 안전. 이 감독은 안전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드론 조종과 촬영

역량은 별개라는 것이죠. 콘텐츠와 영상 제작이라는 촬영의 본질을 잊고 드론 조종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강좌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영상 촬영의 본질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분야든 스킬 현상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합니다. 다만 기계를 다룬다고 해서 단순히 조작에만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수한 창작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지만 분명히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은 드론 촬영을 하려면 먼저 사진이나 영상을 공부할 것을 권하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드론 조작은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치면 평균 수준의 조작이 가능하지만 창작 활동은 오랜 기간 경험과 개인의 감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꾸준한 내공을 쌓아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드론의 눈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 분야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9년에는 122억 4,000만 달러, 2026년에는 221억 2,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4조 4,000억 원으로 신장하고, 사업용 드론 5만 3,000대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어요. 시장 성장과 함께 드론의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촬영은 영화, 예능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관측 톨로도 넓게 쓰일 전망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농장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던 농업 분야에서는 저렴한 관측 및 점검 톨로 드론 촬영을 주목하고 있고, 공업 분야에서도 설비 점검 등에 요긴하게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드론 촬영 및 관측 전문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입니다.
저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월 개근 때마다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원이 되려면 적절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휴가제도를 규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가이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인 연차휴가 발생 조건은 '출근율'입니다.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출근율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법정휴일·약정휴일·휴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를 못 채운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 개정 전에는 입사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후에 발생할 15일을 미리 당겨서 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달 개근해서 11일이 발생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에서 11일을 뺀 나머지 4일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국 입사 2년 차까지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해 적절한 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후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꾸준히 출근했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하루씩 휴가가 늘어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혹시 1년 동안 휴가를 못 써서 사라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변경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꼭 써야 할까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은데,
구두로 약속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취업이 결정되었다면, 그 첫 단추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나 관행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월급을 300만 원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사용자가 200만 원이었다고 우긴다거나, 상여금을 200% 준다고 약속했는데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되므로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정확한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임금체계로 통상임금체계는 기본급을 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포괄임금체계는 사전에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서 급여를 책정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 근로라서 50%가 가산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금액이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인지, 가산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나아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말하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대개 기본급에 포함돼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마다 30분이 부여돼야 하나, 무급이 원칙이므로 무작정 휴게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형태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고,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두어서 급여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잘 몰라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규정이나 이직을 절대 금지하는 규정들 역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규정이나 개별 무효·취소 규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역동적인 이동수단, 인력거에 스민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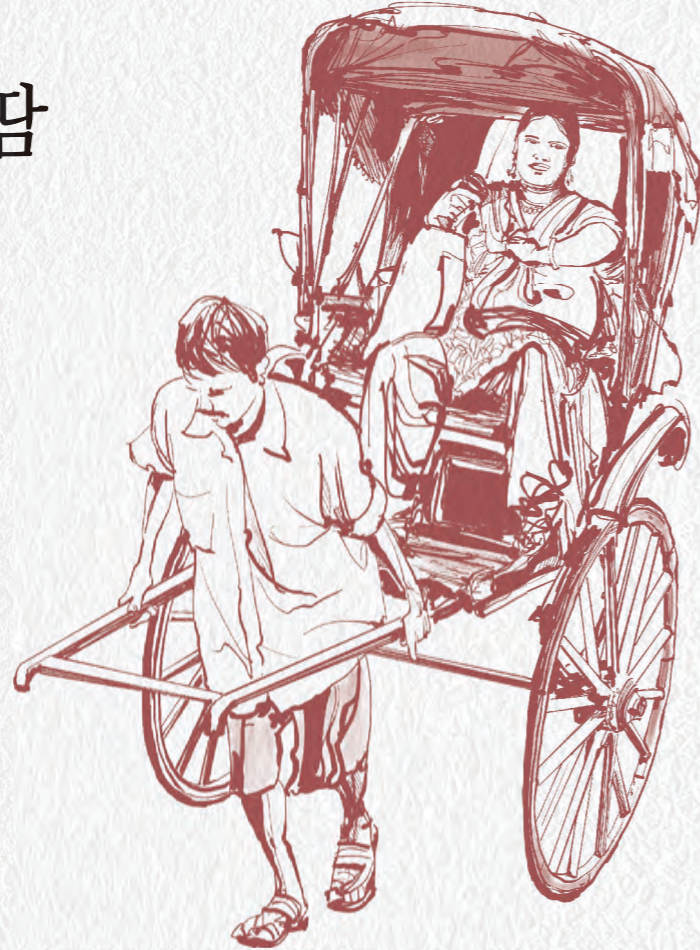
인력거꾼

비록 인력거를 끌어도 배워야 하고 알아야겠다. 하물며 우리들의 자손에랴! (……) 직업에 귀천이 있으랴마는 남달리 사람이 사람을 끄는 차부(車夫). 그들의 땀방울에는 자제는 가르쳐야겠다는 굳은 결심의 눈물이 섞인 것이다.

— “직업에 귀천이 있으랴!”
 <동아일보> 1932년 3월 31일

4명이 동원되어야 이동 가능했던 가마의 시대가 저물고, 오로지 한 명이 인력거를 끌어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이동수단이 혁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두 바퀴 위에 손님을 앉히고 몸소 두 다리로 땅을 지치며 달리던, 가장 땀내나고 역동적인 이동수단. 그 인력거를 이끌었던 인력거꾼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글 이유정



인력거

모던의 상징이자 수단으로 꽃핀 인력거

우리나라의 근대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인력거는 필수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력거는 근대의 상징이자 이동수단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거의 등장은 고종 31년인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 시내와 인천 간 운행을 시작으로 이후 부산이나 평양, 대구 등 지방 도시에서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는 기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염집 부인, 양반, 대작들과 같은 중산층 사람들의 ‘최신식’ 이동수단으로 금세 자리잡았습니다.

튼튼한 몸이 재산인 인력거꾼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었다면 알 수 있지만, 주인공 직업인 인력거꾼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수입도 적은 축에 속했습니다. 튼튼한 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이었기에 점차 수요는 늘어만 갔습니다.

1925년 기록에 따르면 인력거꾼의 한 달 수입은 30원가량입니다. 그 30원은 당시 빈민을 정의하고 가르는 기준 금액으로 인력거꾼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은 매끄러운 도로사정이 아님을 감안한다고 해도 매일 10~15km에 달하는 거리를 손님들을 태우고 달려야 했으니 육체적 피로감이 엄청났겠지요. 인력거꾼 출신의 육상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이 더러 생기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기록도 남아 있지만, 고된 업무 강도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되곤 합니다.

인력거꾼들의 끈기와 합심

1911년 1,217대에 불과했던 인력거가 1923년에는 4,647대로 늘어납니다. 1924년에는 김만수라는 인력거꾼을 중심으로 ‘경성차부협회’를 조직하며 3,000명에 달하는 인력거꾼들의 마음을 모아 단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지위, 박한 사납금 조정도 협회 조직의 이유가 되었지만 인력거꾼의 자제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이 매달 20전씩 모아 대동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제들의 슬기로운 배움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이 학교는 현재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등학교로 남았습니다.

비록 인력거와 인력거꾼들은 전차와 택시, 버스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는 이동수단에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지만 삶의 굳센 집념과 미래의 희망적인 씨앗을 뿌린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94년
등장

최초 10대로 운행 시작

1950년
전후 소멸

점차 늘어나는 임대 승용차(택시)에 밀려 6.25 한국전쟁 전후까지 운행되다가 사라짐

칼퇴 후 뜻밖의 문화타임!



주 52시간 업무 정책의 시작! 압축적으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하루의 피로를 날릴 비타민 같은 환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도 좋고 지인과 함께해도 좋은, 스트레스 제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응어리진 마음을 사이다처럼 풀어주는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이유정



뮤지컬

사이다 퍼포먼스로 멘탈 완전 충전



라이온킹

VS

지킬 앤 하이드



라이온킹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3월 28일까지
지킬 앤 하이드 샤롯데시어터, 5월 19일까지

업무 공간을 벗어나 정글 속 환상적인 이야기와 카리스마 넘치는 음악을 들으면서 흐트러진 멘탈을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이온킹>의 주요 수록 곡들이形形色색의 조류, 역동적인 움직임의 치타와 가젤 등 현란한 무대장치와 황홀한 퍼포먼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더불어 지킬박사의 두 가지 인격에 대한 극적인 심리 변화를 잘 그려낸 <지킬 앤 하이드>도 조승우, 홍광호 등 묵직한 캐스팅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실제 아프리카 평야를 보는 것 같은 생동감을 가족과 함께 느끼고 싶을 땐 <라이온킹>을, 연인과 함께 폭발하는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보고 싶을 땐 <지킬 앤 하이드>를 추천합니다.

영화

직장인 삼질고군분투극으로 공감 충전



극한직업

VS

뽕반



팀워크가 고만되거나 업무가 잘 풀리지 않아 걱정인 직장인에게는 이 두 가지 영화가 위로를 건넬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치킨장사, 밤에는 잠복근무하는 위태위태하면서도 빈틈 많은 마약 전담반의 이야기, <극한직업>이 극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B급 영화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A급 재미의 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를 위한 열의로 불타오르는 뽕소니 전담반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뽕반>도 추천할 만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익숙하지만 생소한 뽕소니 전담반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 보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직장인을 위한 삼질고군분투극을 보며 스트레스를 훨훨 날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도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쳐주는 대리만족



싫다면서 하고 있어 하하하

VS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직장에서의 처세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고구마 백 개씩 저장해 놓고 또 다른 자아를 품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두 책을 읽으면 대신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대나무 숲으로 가서 외쳤던 신하가 된 기분이라면 <싫다면서 하고 있어 하하하>를, 당당히 상대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직접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해도 마음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손목이 아프면서 부풀어 오른다면?

손목결절종



혹시 이유 없이 손목이 아프고, 물혹이 생기는 증상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일상생활과 업무 모두에 불편을 주곤 하는데, 이럴 때 ‘손목결절종’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글 이유정

통증은 복불복이지만 무해한 물혹
결절종은 주로 손목이나 손에 생기는 물혹을 칭합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종양 중 가장 흔한 형태의 물혹인데요.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나 관절 안의 물이 어떤 외부적 충격이나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 새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해서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합니다. 외상이나 과도한 손목 사용도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결절종 중에서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손목결절종은 여자가 남자보다 2~3배 많이 생기고, 20~30대와 중년 여성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절종의 크기는 작은 경우 지름 1cm부터 크게는 5cm까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합니다.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불편함만 들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발병 위치에 따라 혈관이 압박되어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만져보면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것이 특징인데요, 더욱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다면 후에 손전등을 비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전등을 비쳤을 때 혹이 붉게 변한다면 결절종일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서 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직, 미용사 등 손 많이 쓰는 직종 주의

손목결절종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종일 키보드와 마우스를 클릭하며 업무를 보는 사무직, 판서를 많이 하는 선생님, 가위질과 빗질로 반복적

인 손동작이 업무의 주를 이루는 미용사, 그리고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로 인해 손에 피로도가 높은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손목결절종이 생기면 먼저 손을 많이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해롭지 않지만 주위 신경이 눌러 손가락이 저린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외관상 크기가 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주사로 결절종 내의 관절액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결절종이 재발률도 높고 손목 사용이 많을 때 발병이 쉽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지 않고 관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절종이 생긴 위치와 크기,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충분한 치료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손목결절종 4가지 예방법

- 양 손목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세요.
- 주기적인 손목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 반복적인 손목 사용을 피해주세요.
- 운동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 무리를 최소화하세요.

손목결절종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군

-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직
- 칠판 판서를 많이 하는 선생님
- 종일 빗질, 가위질 하는 미용사
- 쓸고 닦느라 손목 관절에 무리가 많은 가정주부

인생 설계와 함께하는 연령별 재테크 포트폴리오

재테크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일 것입니다. 남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재테크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젊은 시절엔 장기적인 안목이되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령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글 권주희



좋은 습관 만들기

인생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학창시절엔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 쓰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격변의 시기,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막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면 월급 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절세는 기본. 큰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시간이 충분하니 서둘러 시작하세요.

추천상품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이율과 비과세는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절세도 재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 소득 2,000만 원 이내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까지 연 1.8%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월세금도 월 40만 원까지 대출금리 연 1.5%가 적용됩니다.



삶의 터전 가꾸기

가장 먼저,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는 세대이다 보니 주거가 불안하면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노후 준비도 발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2030세대에 가입해놓은 금융 상품들을 살펴 보면서 새로운 상품 가입 대신 기존 상품의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엔,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증액 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추천상품

- **IRP(개인형 퇴직연금)**: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동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불입하는 상품입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 중에서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MA통장**: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요, 입출금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만 하루만 입금해도 이자를 챙겨주기 때문에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상품 종류가 다양한데, 이자율을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공격보다는 수비

소득이 줄어들거나 대폭 삭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 상품을 살펴보고 위험자산 투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져 소득과 부동산 소유 정도에 따라 은퇴했다라도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공격보다는 최선의 수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길 권합니다.

추천상품

- **비과세생계형저축**: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단 3,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한, 농·수·축협 등에서 파는 정기예탁금도 농특세 1.5%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주택연금**: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집값이나 금리의 변동에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월간 <내일> 독자들을 위한 칼럼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독자님들의 사진을 실고자 합니다.

3월호 주제 | 나의 일터, 내 자리를 공개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독자 여러분의 일하는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쌓아둔 서류와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건들도 늘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열과 행을 맞춰 반듯반듯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나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독자 여러분의 일터, 내 자리를 보여주세요.



참여 방법

- 1 이번 호 내일스타그램 주제를 확인한다.
- 2 주제에 맞는 장면을 발견하면 찰카 사진을 찍는다.
- 3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짧은 사연과 함께 전송한다.
moel2019@naver.com
- 4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이메일에 반드시 기재한다.

참여 혜택

멋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선발해
다음 호 지면에 공개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19 청년 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스 모집



2019. 02.18 ~
03.10



“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고, 챙길 수 있도록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청년정책을 전달할 서포터스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이라면 누구나 가능
- 팀(5인 1팀) 또는 개인 지원 가능
- 총 50명(10개 팀) 모집 예정
- 지원분야 : 기획/취재/영상 분야
- ※ 팀 지원 시 지원 분야별 1인 포함 필수

모집일정

- 모집 기간 : 2. 18(월) ~ 3. 10(일)
- 면접자 발표 : 3. 15(금)
- 면접심사 : 3. 20(수) ~ 21(목)
- 최종 발표 : 3. 29(금)
- 발대식 : 4. 5(금)

※ 상기 일정은 운영사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면접 및 발대식 불참자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원방법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http://www.youthmoel.co.kr>)

활동내용

- 활동기간 : 4월~7월, 수료식 : 8월초 예정
- 청년고용정책 관련 행사 취재 및 홍보
-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청년고용정책 콘텐츠 제작(영상카드 뉴스 등)

성과평가 및 주요 시상 내역

- 공동/필수/자율 미션에 대한 월별/중간/최종 활동보고서 제출을 통해 평가 실시
- 최종 수료 시 서포터스 활동 인증서 수여
- 활동 우수 팀 시상 및 상금 수여
- 홍보 물품 지원 및 매월 소정의 활동비 (팀별 50만원) 지급

문의

Tel. 070-5080-5983(평일 09:30~17:30) E-mail. youth@univ.me

2019년 2월, 월간 <내일>이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 1 매달 주제가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달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민을 공감하며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월의 주인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의 힘찬 도전을 월간 <내일>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 2 시기와 상황별 유용한 노동 정책과 제도를 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 취업 성공기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3 행복한 일터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처우와 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들을 찾아가 상생협력하는 노사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 4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찬 정보는 물론 따뜻한 휴식과 위로가 되는 매체로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Quiz

1월호 퀴즈 정답 근무혁신 10대 제안

1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정희(전북 익산시)
박선영(서울 강북구)
여현구(경남 창원시)
유재범(서울 성북구)
이규형(경기 군포시)
이준석(경기 의정부시)
정선하(인천 동구)
조인수(충북 충주시)
최종태(경북 구미시)
황교문(경북 김천시)

월간 <내일> 2월호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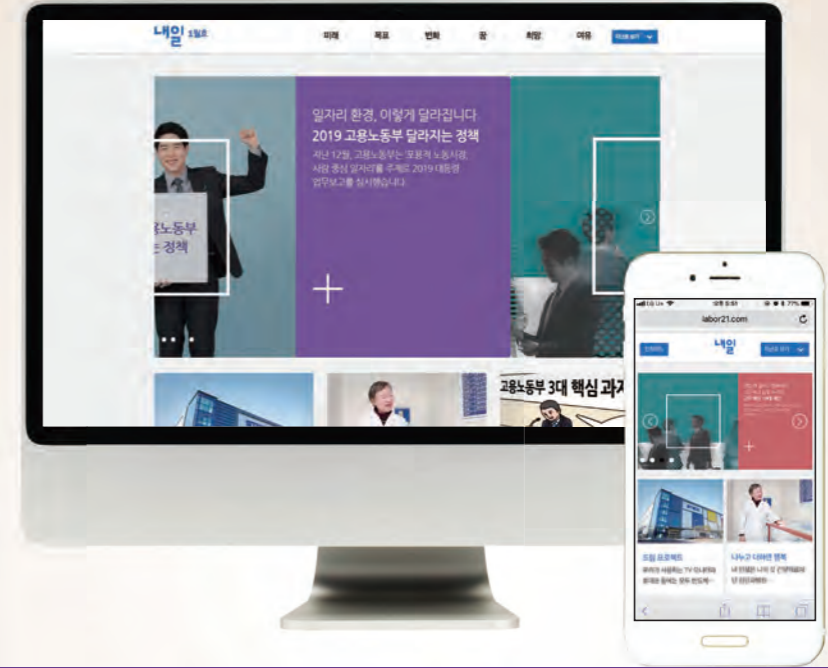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15페이지)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정기구독 신청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달부터 반영되어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2. 웹진(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